

## 축산유통 방향에 대한 CEO 메시지

# 한국형 패커 육성에 관한 소고(小考)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최형규

최근 한국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패커의 육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원래 미국 육류산업에 있어서 패커란 도축 또는 도축·가공을 함께하는 기업의 의미로 출발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진공포장 형태의 Boxed Beef에 의한 유통혁명의 등장으로 도축업에서 가공·판매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해감으로써 패커는 도축부터 가공·판매까지 함께하는 기업, 즉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축산업의 완전 수직통합은 닭의 경우(Tyson, JBS 등)에서 보듯이 사료→종축→사육→도축→가공→판매·수출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수직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기업 입장에서 자본의

확대, 위험분산, 생산방법의 향상과 품질관리, 연중 안정적 공급, 효율적 마케팅 시스템 개발에 유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단계 축소로 안정된 가격으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수직통합은 주력기업에 의한 직접 소유 관련 기업간의 협약·협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Forward 형태(예 : 도축→가공)와 Backward 형태(예 : 도축→사육, 유통→가공)로 나누어진다.

세계적으로 축산업의 수직통합이 이루어지는 동향을 보면 닭→돼지→소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축종의 시장규모와 자금회전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직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자금회전이 빨리 되는 축종 순으로 수직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1) 세계적 패커는 매출액 기준으로 브라질 기업인 JBS가 미국의 Swift&Co., Smithfield Beef Group 등을 인수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Tyson Foods(IBP 인수), Cargill Meat Solution(Excel 인수), National Beef Packing Co. 등이 뒤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기준 최고기 4대 패커의 시장점유율은 71.6%, 5대 패커의 시장점유율은 78.1%이다. 패커들의 도축물량 확보를 보면 현금 구입(협상가격, 2주내 운송) 67%, 계약 구입(공식에 의한 변동가격) 20%, 단기고정가격 또는 선물거래 가격 구입 4%이다. 패커가 도축물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나 칠레의 Agrosuper의 경우는 돼지 도축물량을 완전 자체 사육·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육계 부분의 제열화가 90% 이상 진행되고 있듯이 이러한 축종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수직통합 초기단계에 있는 돼지, 소이다. 돼지의 경우 사료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증견 육가공업체와 양돈조합으로 구분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의 경우 지역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브랜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한편, 농협 중앙회가 사료·도축·가공업을 하고도 있지만 판매·유통망을 중심축으로 회원조합과 사육농가에 대한 Backward 형태의 수직통합을 시도하고 있어 그 조화가 필요하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도축업은 주로 임가공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외국과 같이 수직통합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소의 경우 지역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브랜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한편, 농협 중앙회가 사료·도축·가공업을 하고도 있지만 판매·유통망을 중심축으로 회원조합과 사육농가에 대한 Backward 형태의 수직통합을 시도하고 있어 그 조화가 필요하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미트센터를 설립, 가공업에 진출하는 Backward 형태의 수직통합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형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체 가공물량이 많아지고 물량 확보방식이 규모화, 체계화되기 시작하면 육류 시장 특히 쇠고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소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Backward 수직통합 시도는 지역협동조합의 브랜드형이 판매에 약점을 보이고 있어 이의 상당한 위축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농협중앙회의 활발한 역할이 요구된다.

복잡한 육류시장에서 패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i) 축종별 산업의 전과정을 SCM(공급사슬관리)의 관점에서 포괄관리 할 수 있는 헤드쿼터 운영 (ii) 각 사업단계에서 적용되는 독특한 품질관리(사양, 질병관리 포함) (iii) 품질 균일화와 물량 확보를 위한 종축 조달체계의 확보 프로그램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의 수직통합은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논의되어야 할 점 또한 많이 있다.

즉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시장 영향력 행사 : 공급 조절, 가격 조정 등)를 상쇄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수직통합기업의 시장 영향력 행사를 감시·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sup>2)</sup>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생산자의 수직통합기업에의 연속으로 표현되는 논쟁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향후 패커의 진전에 대비하여 등급제와 이력제가 패커들의 물량 확보시 가격정산과 품질관리에 철저히 활용되도록 운용하는 것은 물론 도축·가공 품질공정평가 프로그램 운용, 축산물 가격과 유통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준비해 볼직 하다고 생각된다. 등하정<sup>2)</sup>

2) 미국은 패커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1919년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조사를 계기로 '921년 Packers and Stockyard 법을 제정, USDA 산하에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GIPSA)를 설치하여 패커들의 가격조정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Report를 제출하고 있다.